

눈높이 원자력 교육과 5대 브랜드 홍보 사업 추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새해 벽두 국제 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2004년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후 불과 3년여 만에 2배로 급등한 것이다.

지난해 말에는 ‘발리 로드맵’이 채택됐다. 2013년부터는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온실 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유가의 고공 행진과 발리 로드맵으로 원자력이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개도국의 협상 전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국과 인도 등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원자력의 역할을 적극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 1979년 드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본토에 원전을 짓지 않았으나 지금은 2030년까지 3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 러시의 최대 참여국으로 전환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100여기를 포함해 전 세계는 450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2020년까지 전 세계에 100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원전 2기 건설비가 약 5조원 정도이므로 세계 원전 시장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기후변화협약의 시작은 지구 환경 보전에서 출발했으나 결과는 세계 각국의 경제적 이해 득실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돼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4차 종합대책은 “원자력을 온실 가스가 거의 없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전략 차원에서 확대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원전 건설 및 운영을 추가적인 온실 가스 감축분으로 인정해줄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와 발리 로드맵은 우리에게

계 원자력 이용 확대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복지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작금의 호기도 국민의 이해와 신뢰가 없으면 위기로 전락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전, 안정적 연료 수급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원자력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선의 에너지원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정책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이해와 조정과 수용을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을 둘러싸고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국내 유일의 원자력 홍보 전문 기관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새

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08년 새해를 열었다.

‘미래를 창조하는 원자력문화진흥 기관’을 새 비전으로 설정하고, 핵심 가치인 ‘신뢰, 희망, 소통, 창의’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 리더 브랜드 도약’, ‘차세대 교육 기반 확충’, ‘원자력 정보의 허브 구축’, ‘위상과 전문 역량 제고’ 등 역동적인 전략 목표를 세우고, 핵심 사업 중심 체제 구축,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사업 개발 등 12개 전략 과제를 도출하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또 품질 경영, 브랜드 경영, 고객 감동 경영, 책임 경영, 인재 경영 등 5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은 신뢰받는 ‘명품 KNEF’가 되기 위해 하이파이브를 외치고 있다.

원자력 희망 UP 캠페인 등 5대 브랜드 사업 추진

정부는 최근 개최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39%인 원자력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55.7%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원전 적정 비중 검토안을 통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9기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현재 가동중인 20기와 건설중인 6기, 건설 계획이 확정된 2기를 포함해 총 37기로 늘어나게 된다.

올해 원자력 사업 최대 화두 중 하나는 국내 20기의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 일 것이다.

현재 8천톤이 원전 내 임시 저장고에 쌓여 있다. 저장능력은 2017년이면 한계에 이르러 별도의 장소에 임시 또는 영구 저장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건설하기까지 부지 선정, 설계·인허가, 건설 기간 등 최소한 8년이 필요해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하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해외에서도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학계 및 연구계의 전문가, 시민 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하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기에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신고리 3,4호기 건설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국민 이해도 시급하다.

국민들이 보내는 믿음과 신뢰는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한국 원자력문화재단은 지금까지 7·8개로 분산 시행해오던 사업을 교

육 사업, 홍보 사업, 연구 협력 사업 등 3개 카테고리로 통합, 집중 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원자력은 석탄, 석유 등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해 볼 때 ‘첨단, 미래, 깨끗함’ 등 유망 브랜드로서의 차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단은 유망 브랜드로서 원자력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차별적 이미지를 적극 전파하는 원자력 브랜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원자력을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방송, 신문 매체 등을 활용한 ‘원자력 희망 UP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원자력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 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가 에너지 리더 브랜드로서 원자력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생활 속의 행복 에너지로서 원자력이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복한 i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전국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 ‘원자력 순회 강연회’를 개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갈 것이다.

또한 원자력 홍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원자력 홍보 아카

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에너지 체험관 '행복한 I' 운영도 재단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접하게 되므로, 이들 매체를 통해 객관적인 원자력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퀴즈 대한민국, 과학 카페, 신나라 과학나라 등 메시지 전달력이 큰 공중파 TV 방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원자력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자연스럽게 이해시키고, 계기성, 이슈성 현안에 대해서는 언론의 심층 취재 보도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선도하고,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차세대가 선호하는 위성방송, VOD, 디지털 TV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정기 간행물「행복한 E」를 비롯하여 홍보 책자, 팸플릿, 만화, 동화 등 각종 간행물에 수록되는 정보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제공함으로써 원자력의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눈높이 원자력 교육 · 청소년 문화 행사 육성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과 개발 등에 대한 체



국내 최초의 종합 에너지 체험 전시관인 '행복한 I'는 모든 전시물이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활용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작동해보면서 관람객 스스로 에너지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전달해주고 있다.

계적인 교육과 생활 체험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교육을 통해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우수한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을 개발, 이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균형감 있게 전파해 나간다면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이해 기반을 자연스럽게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여론 주도층, 교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계층별 특성에 맞는 눈높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차세대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

고, 성장기 청소년들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차세대 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설립 초기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원자력 현장 교육은 엄정하고 투명한 대상 선정, 수준 높은 인솔 서비스,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강의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파급력이 큰 교육으로 내실화하고, 스승의 날을 전후해 시행하는 원자력 일일 교사, 전국의 공무원교육원, 평생교육원, 각종 사회 단체 등 일반인 대상 원자력 강좌를 확대하여 원자력 교육의 파급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또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자력 이해 기초 과정 직무 연수를 확대 시행하고, 교육 내용도 기초 과정

에서 전문 과정까지 심화하여 직무 연수 참여 교사들을 잠재적 원자력 후원군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밖에 초·중·고 교과서의 원자력 관련 기술 내용을 조사하여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 집필진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원자력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교과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새해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체험교육을 통해 원자력 인재를 양성하는 '청소년 원자력교실', 원전 지역 청소년들의 재능과 감성을 원자력과 이어주는 '청소년문예대전' 등과 함께 '행복한 I 페스티벌'을 재단의 대표적 청소년 대상 문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에너지 체험관 운영 활성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차세대에게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교육을 '생활화'해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에너지 확보의 어려움을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재단 사옥 1층에 에너지 체험관 '행복한 I'를 개관하여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국내 최초의 종합 에너지 체험 전시관인 '행복한 I'는 '즐거운 공놀이', '내 몸의 열에너지', '바람

이 쨍쨍', '물줄기가 쉼', '햇빛이 쨍쨍', '파도가 철썩철썩', '내가 만드는 원자력', '방사선 동물병원', '달려라 에너지' 등 20여가지의 다채롭고 재미있는 전시물을 갖추고 있는데, 모든 전시물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을 활용해 전시물을 직접 만지고 작동해보면서 관람객 스스로 에너지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자연스럽게 전달해주고 있다.

전시관 관람을 마친 학생들은 2층 교육실에서 '신나는 과학실험실' 등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어 이미 몇 개월 후까지 관람 예약이 차 있는 상태이다. 새해에도 관람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원자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시물 및 실험 교실 콘텐츠 보강 등 운영을 더욱 내실화 할 것이다.

이밖에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있는 전기에너지관, 서울시 교육과학연구원 원자력홍보관 및 국립서울과학관 원자력관 등 상설 전시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부와 에너지 유관 기관 공동으로 개최하는 에너지 순회 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에너지 체험관 운영을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대도시 및 권역별 에너지 체험 전시관 건립을 위한 노력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다.

최신 정보 기술 활용한 IT 홍보 사업 추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웹 2.0 시대의 IT 흐름에 맞춰 최신의 IT 홍보 사업을 발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권장 사이트로 선정된 바 있는 재단 홈페이지(www.knef.or.kr)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원자력계 대표 포털 사이트로서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자 한다. 유관 기관과의 콘텐츠 제휴를 확대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메뉴를 더욱 활성화하여 열린 공간으로서 누리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최신 동영상 콘텐츠를 UCC 사이트 및 주요 포털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정보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네이버', '파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제휴하여 원자력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패밀리 사이트인 '원자력지식발전소'와 에너지 체험관 '행복한 I' 사이트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모션을 전개할 것이다.

최근 RSS(Rich Site Summary) 시스템이 보편화되면서 누리꾼은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자동으로 제공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재단은 원자력 정보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수집한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신청자 23만여명에게 발송하고 있다. 올해에는 정보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보를 주제별로 더

육 알기 쉽게 정렬하여 수신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재단은 원자력 및 재단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원자력 정보 DB'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원자력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맞춤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자력 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 교류 활성화 및
조사 분석 기능 강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하여 세계 원자력 분야의 최신 정보 수집 및 홍보 사례 연구,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올해에도 원자력계 저명 인사 초청 및 해외 유관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제8회 한·프 원자력 홍보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원자력문화진흥재단과의 정보교류회 개최, PIME 2008, JAIF 연차대회, ANS 연차대회 등 원자력 PA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원자력 시설 시찰 사업의 국내 공식 창구로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등 원자력 사업 현안과 관련하여 해외 관련 시설 시찰을 통해 정책 결정층 및 여론 주도층의 인식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새해에도 미래를 창조하는 원자력 문화 진흥 기관으로서,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에 대해 바르게 알리는 나침반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기반을 넓히는 일은 원자력 사업이 국민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 제공 기관으로서 원자력 찬·반 세력의 중재자 역할에 충실하고, NGO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난해 원자력 산·학·연 심포지엄 개최 및 '원자력 발전 30년-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원자력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도 원자력 주요 이슈를 주제로 심포지엄과 포럼을 개최하여 원자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재단은 정기 및 간이 여론 조사

를 통해 일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다양한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원자력 정책 및 홍보 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홍보 사업 효과 분석, 홍보 모니터 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이해 활동에 대한 반응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홍보 활동 및 중장기 원자력 홍보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새해에도 미래를 창조하는 원자력 문화 진흥 기관으로서,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에 대해 바르게 알리는 나침반으로서,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이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